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2020년 6월

(재) 울산 문화재 연구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I. 조사개요

1. 조사대상지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31-12번지 일원(산210-14, 630-1, 630-2, 630-7, 631-7, 631-10~12, 633-4, 681-23번지)
2. 조사 면적 : 4,620.4㎡
3. 조사 기간 : 2020년 4월 27일~2020년 4월 29일(실조사일수 : 3일)
4. 조사 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5.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이 수 홍(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실 실장)
 - 책임조사원 : 권 용 대(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실 부장)
 - 조 사 원 : 성 민 호(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실 연구원)
 - 준 조 사 원 : 김 훈 희(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실 연구사)
 - 보 조 원 : 박 진 혜(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실 연구원)
6. 조사의뢰자 : 울산광역시 남구청

II. 조사경위 및 목적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선암동 631-12번지 일원에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을 계획하면서 아래와 같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조치통보를 받았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31-12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부지 내 유존지역 보존조치 협의 요청과 관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문화재 보존조치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반영(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 시 유적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매장문화재 분포 확인을 위해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문화재 표본조사(조사면적 4,620.4㎡)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상기 조사로 인해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라.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장시간 소요될 수 있음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람.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우리 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Ⅲ.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위치와 지리적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31-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 부지이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선암동은 울산시 남구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남쪽의 함월산과 동쪽의 신선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크고 작은 구릉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유적 주변의 구릉들은 대부분 능선이 평탄한 편이지만, 도시개발로 인하여 능선부를 제외한 구릉 하단부와 구릉 사이 곡부는 대부분 주택과 도로, 생활시설 등으로 원지형이 파괴되어 있다. 금번 조사대상지는 함월산(해발 138m)에서 뻗어 내려오는 북서쪽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조사대상지의 일부는 기존 도로 조성시 만들어진 법면과 배수시설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하는 지점의 지질은 堂舍安山岩으로 경상남북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上部 쥐라기에서 白堊紀에 속하는 慶尙系 累層의 일부인 長髮統 중 하나이다. 유적 주변으로 동일한 長髮統에 속하는 堂舍安山岩質凝灰岩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¹⁾

2. 연혁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남구는 삼한의 진한에 속하였던 곳이다. 신라 제5대 파사왕

1) 국립지질조사소, 1968, 『한국지질도 1:50,000 蔚山도폭(SHEET7020-1)』, pp.2-3, p.13.

때에 굴아화촌에 현을 두었는데 이에 속하였다. 고려 태조 때에는 홍려부로 승격하여 하나의 고을로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성종 14년(995)에는 홍려부를 공화련으로 변경하고 별호를 학성이라 하였다. 조선 태종 13년(1414)에는 울주를 울주군으로, 선조 31년(1599)에는 울산도호부로 승격하였으며 고종 32년에는 울산도호부가 울산군으로 개칭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였으며, 1931년에는 울산면을 울산읍으로 승격하였다. 1962년에는 울산 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됨에 따라 울산시로 승격하였으며 1985년에 구제(2구 1출장소)가 실시되었다. 1988년에는 방어진 출장소와 동구청으로 승격하였으며 1996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었고, 1997년에 울산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선암동은 고종(高宗) 31년(1894)에 선암(仙巖)과 명동(明洞)으로 갈라져 있었다가 1911년에 선암리(仙岩里)라 하였다. 선암(仙岩)이라 하는 것은 옛날 마을의 신선암(神仙巖)에서 선인이 놀았다하여 그 바위 이름에서 유래된 동명이다.²⁾

3. 주변유적 현황³⁾

조사대상지와 그 주변에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주변 유적들은 다음과 같다.

1) 발굴조사 유적

① 울산 야음동 789번지 유적(도면1-A)

야음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학교부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학교건립계획이 수립되면서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조선시대 분묘 1기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분묘는 토광묘이고, 내부에서 백자완 1점, 백자접시 1점, 백자종지 1점, 청동순가락 1점, 구슬 1점 등 총 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지표에서 청자 파편도 일부 채집되어 고려~조선시대의 분묘가 다수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울산 야음동 유적(도면1-B)

밀양대학교 박물관과 동의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울산 두왕로~구암간 도로개설구간 내 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44동과 논층, 삼국시대 논층 등이 조사되었다.

2) 울산문화원, 1986, 『蔚山地名史』.pp.128

3) 문화재통합 GIS 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③ 울산 선암동 유적⁴⁾(도면1-C)

2011년도에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 조사된 울산해양경찰청 부지 내 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9동, 조선시대 주거지 1동, 묘 1기 등 2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2) 지표조사 확인 유적

① 울산 선암동 허재골 유적(도면1-12)

허재골과 주변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함월산에서 선암저수지 방향으로 뻗어내린 구릉과 그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 해당된다. 구릉은 산림과 묘지, 골짜기는 논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질토기가 채집되어 삼국시대의 주거지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릉에서 야트막한 봉분이 확인되고, 자기 파편이 채집되어 조선시대의 분묘도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울산 선암동 끝바위 유적(도면1-8)

선암저수지와 서쪽으로 접해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서동방향으로 발달한 침식 저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해당되며 산림과 경작지,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질토기 파편이 다량으로 채집되어 삼국시대의 주거지와 분묘 등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울산 선암동 대나리 유물산포지(도면1-13)

강남그린아파트와 서쪽으로 접해 있는 구릉과 골짜기에 위치한다. 이곳은 함월산(해발 138m)에서 북쪽으로 뻗은 구릉의 북동쪽 사면에 해당되며 산림과 경작지,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분청사기와 백자 등 조선시대 자기 파편이 채집되어 동시대의 분묘와 주거지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울산 야음동 유적(도면1-2)

밀양대학교 박물관과 동의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곳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44동과 논층, 삼국시대 논층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형태에 따라 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고, 확인된 시설로는 주혈과 노지, 벽구 등이 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공열문과 단사선문, 구순각목 등이 각각 또는 복합된 형태로 시문된 토기와 석검, 석촉, 석부, 지석 등의 석기, 어망추, 방추차 등의 토제품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논은 이른바 계단식 논으로 총 63면이 확인되었다.

⑤ 울산 선암동 막골 유물산포지(도면1-11)

선암저수지와 남쪽으로 접해 있는 막골과 주변 구릉에 위치한다. 막골은 비교적 폭이 넓으면서 완만한 지형경사를 가진 골짜기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골짜기와

4) (財)蔚山文化財研究院, 2011, 『蔚山仙岩洞遺蹟』.

접해 있는 구릉은 정상부로 가면서 경사가 급해지는데,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자기 파편이 채집되어 동시대의 분묘와 주거지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시대 경작유구가 분포할 가능성도 있다.

⑥ 울산 신정동 하리골 유적(도면1-5)

감나무진사거리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구릉의 남동쪽 사면 말단부에 해당된다. 이곳은 산림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간으로 인해 원지형이 일부 파괴된 것으로 생각된다. 분청사기와 백자 등 조선시대 자기 파편이 다수 채집되어 동시대의 주거지 등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⑦ 울산 두왕동 호박골 유적(도면1-6)

신정동 하리골 유적과 도로를 경계로 남쪽으로 마주보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북남방향 능선의 북쪽 사면 말단부로 산림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가와 주택 등의 건축으로 인해 원지형이 일정 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삼국시대 토기편이 채집되어 동시대의 주거지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⑧ 울산 선암동 새골 유적(도면1-9)

야음초등학교와 서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야트막한 구릉의 남동쪽 사면에 해당되는데, 산림과 경작지,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로와 택지 건축으로 인해 사면 말단부는 부분적으로 원지형이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문토기가 채집되어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⑨ 울산 선암동 점예들 유적(도면1-14)

개운초등학교와 남쪽으로 접해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함월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의 능선부에 해당되는데, 사면은 경사가 급한 편이다. 대부분 산림과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능선부를 중심으로 야트막한 봉분이 확인되고, 자기 파편이 일부 채집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고분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⑩ 울산 신정동 새골 유적(도면1-4)

신정 유적과 새골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구릉 말단부의 서쪽 사면에 해당되는데, 완만한 지형경사를 가진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다. 삼국시대 토기 파편이 채집되어 동시대의 주거지 등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⑪ 울산 상개동 유적(도면1-15)

상개저수지와 북쪽으로 접해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함월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구릉의 남쪽 사면에 해당되며 능선부를 중심으로 일정한 면적의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다. 도질토기와 연질토기 파편이 채집되어 삼국시대의 주거지와 분묘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형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분포할 가능성도 있다.

⑫ 울산 신정동 신정 유적(도면1-3)

새굴과 서쪽으로 접해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북서-남동방향으로 발달한 침식 저구릉의 남쪽 사면 말단부에 해당되며 산림과 묘지,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삼국시대 토기 파편이 채집되어 동시대의 생활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입지조건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분포할 가능성도 있다.

⑬ 울산 야음동 789번지 유적(도면1-1)

야음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학교부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학교건립계획이 수립되면서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조선시대 분묘 1기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분묘는 토광묘이고, 내부에서 백자완 1점, 백자접시 1점, 백자종지 1점, 청동숟가락 1점, 구슬 1점 등 총 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지표에서 청자 파편도 일부 채집되어 고려~조선시대의 분묘가 다수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⑭ 울산 선암동 유적(도면1-10)

야음초등학교와 남쪽으로 접해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완만한 지형경사를 가진 구릉으로 산림과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쪽과 서쪽은 선암저수지로 인해 침수된 상태이다. 무문토기와 도질토기, 연질토기 등이 채집되어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주거지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⑮ 울산 선암동 유물산포지(도면1-7)

선암동과 야음동의 경계를 이루는 야산에 위치한다. 남영아파트 북서쪽에 위치하면서 능선부 일부는 공동묘지로 나머지는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다. 능선부에는 비교적 넓은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고, 사면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자기 파편이 다수 채집되어 동시대의 분묘 등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IV. 조사내용

1. 조사방법

표본조사 방법은 트렌치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트렌치는 조사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하여 총 8개소에 설정(남-북 방향)하였다. 트렌치의 규모는 폭 1.3m 정도이며, 깊이는 기반층까지 굴착하여 유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표본조사 후 안전을 고려하여 트렌치는 모두 복토하였다.

2. 층위

조사대상지 내 트렌치는 모두 8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각 트렌치 내 토층양상은 대부분 유사하며, 지표에서 약 15~25cm 정도의 표토(흑갈색 사질토)를 제거하자 그 아래에서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다. 각 트렌치별 층위의 상세는 <표 1>과 같다.

<표 1> 트렌치 제원표

번호	토층	유구	비고
1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2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3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4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5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6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7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8Tr	흑갈색 사질토(표토), 암반층(기반층)	없음	

3.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대부분 나지막한 구릉과 북쪽으로 이어진 구릉 말단부의 경사면이다. 현재 도시화 과정에서 조성된 공원과 기존 도로의 법면, 배수시설 등으로 인해 원지형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지 내 지형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 많다. 특히 A~C 세 구역(도면 3의 A~C구역, 사진 2~4 참조)은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면이 만들어졌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높은 경사각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형조건으로 볼 때, 유적이 입지하기에도 불리하다. 조사대상지 주변은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있으며, 구릉은 일부가 경작 및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표본조사는 구릉 사면과 곡부에 총 8개의 트렌치를 설치한 후,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였다. 트렌치 조사 결과 급경사면에 해당하며, 표토 바로 아래 기반층이 확인되었고,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지형조건으로 볼 때, 유적이 입지하기에 불리하다. 각 트렌치별 규격 및 상세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트렌치 규격 상세

번호	트렌치 규모(m)			유구	사진	번호	트렌치 규모(m)			유구	사진
	長	幅	深				長	幅	深		
1	6.2	1.3	0.25	없음	5·6	16	4.2	1.3	0.2	없음	13·14
2	4.4	1.3	0.15	없음	7·8	17	4.0	1.3	0.22	없음	15·16
3	5.5	1.3	0.17	없음	9·10	18	5.5	1.3	0.25	없음	17·18
4	5.2	1.3	0.20	없음	11·12	19	5.2	1.3	0.2	없음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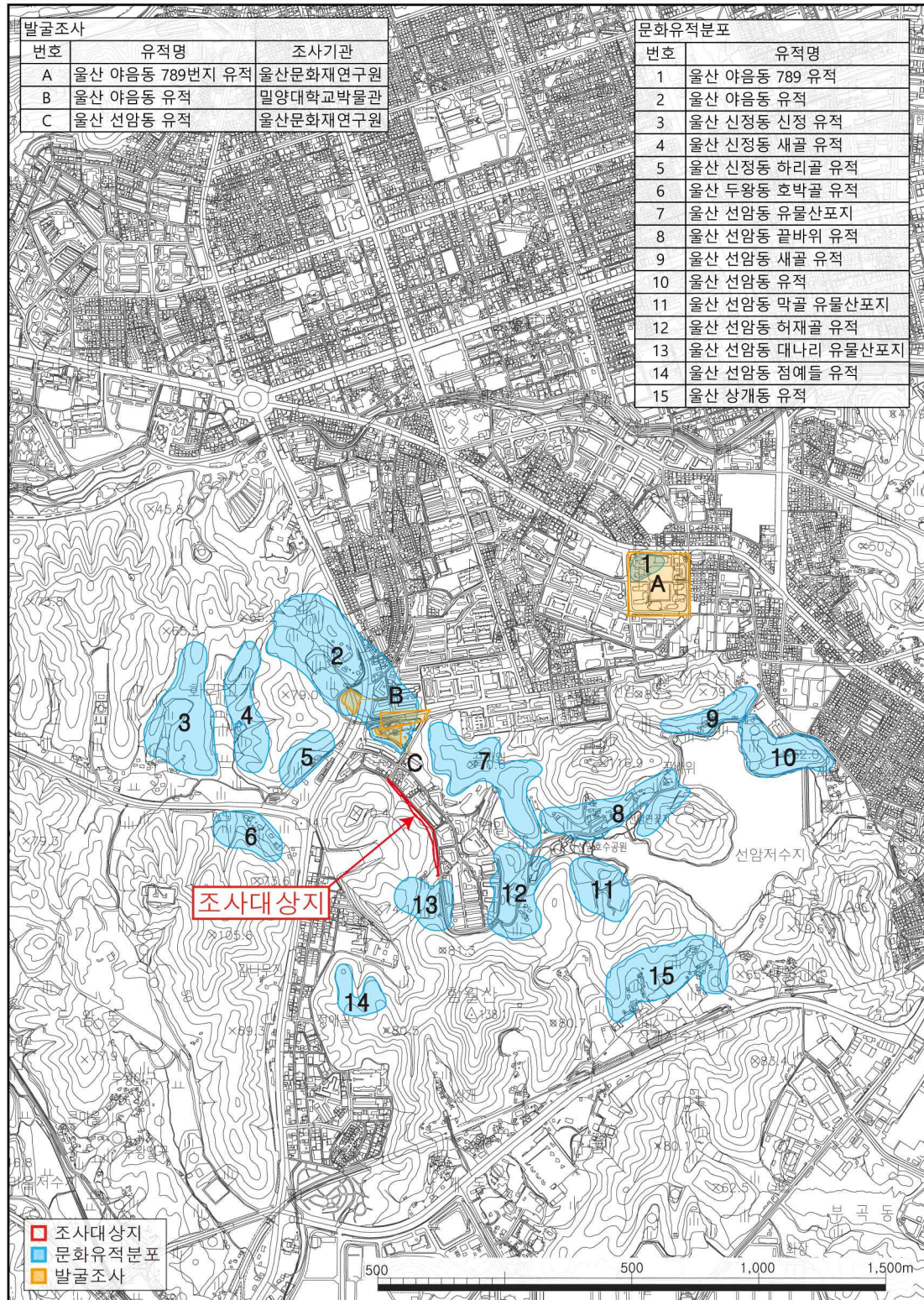
V. 조사단 의견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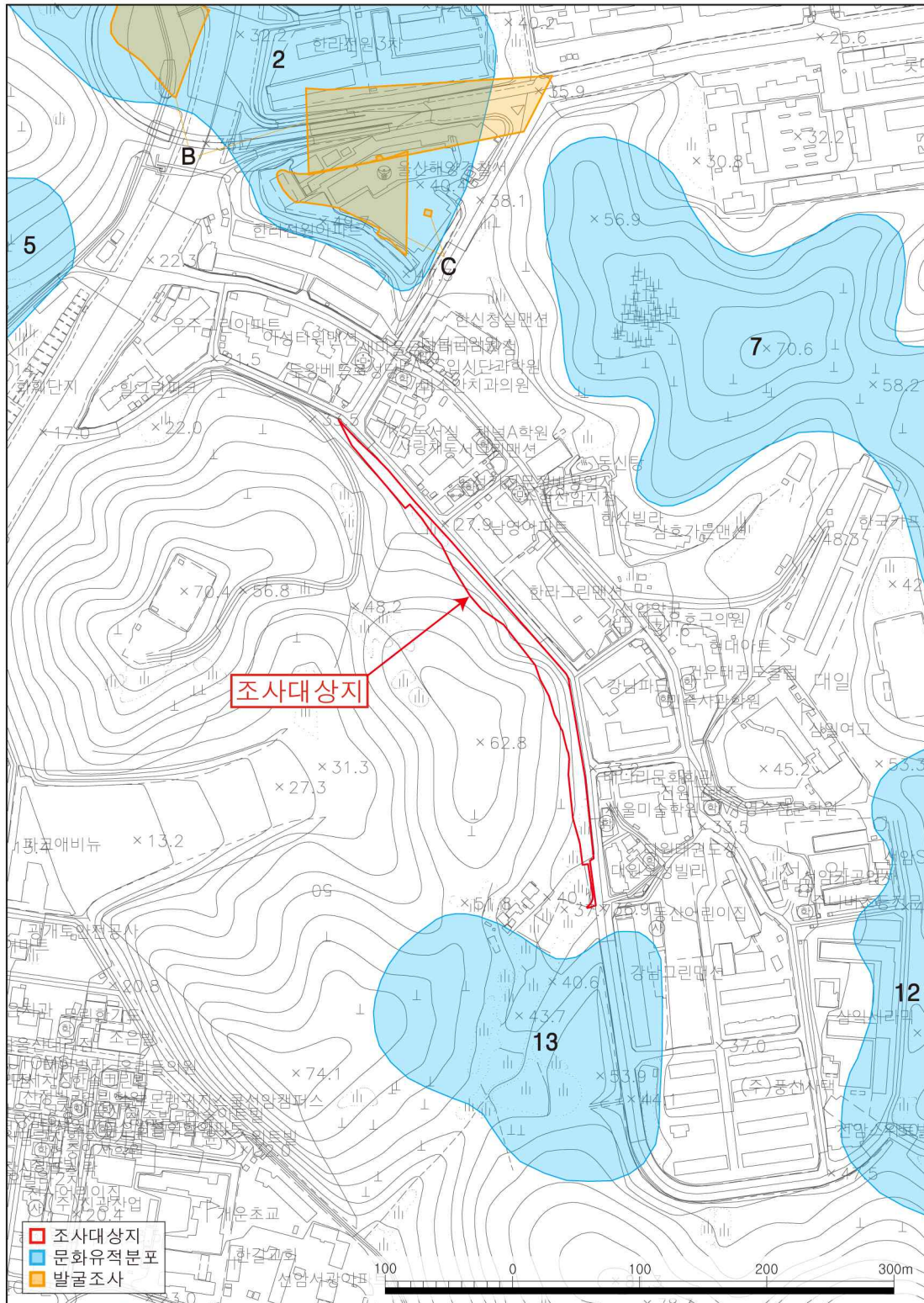
1. 조사대상지는 남구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 확장부지에 해당된다.
2. 조사대상지는 함월산(138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도시화 과정에서 조성된 공원과 기존 도로의 법면, 배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원지형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대상지 내 8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에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본조사라는 조사방법상의 한계로 확인되지 못한 매장문화재가 공사도중 확인된다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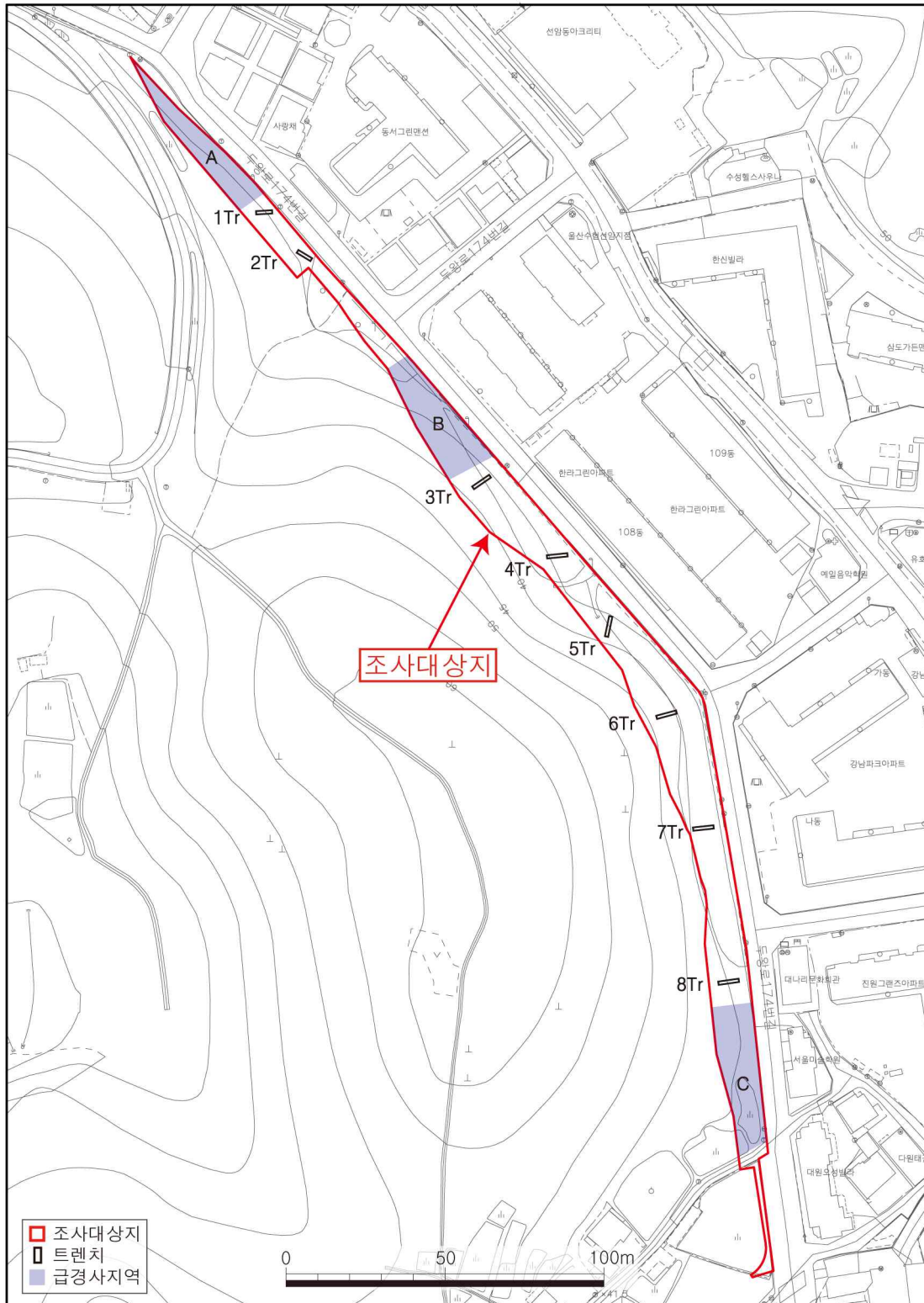
1. 도면 1. 조사대상지 지형도 및 주변 유적 분포도(S: 1/25,000)
2.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S: 1/5,000)
3. 도면 3. 트렌치 배치도(S: 1/2,000)
4. 사진(1~20)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S:1/5,000>



도면 3. 트렌치배치도<S: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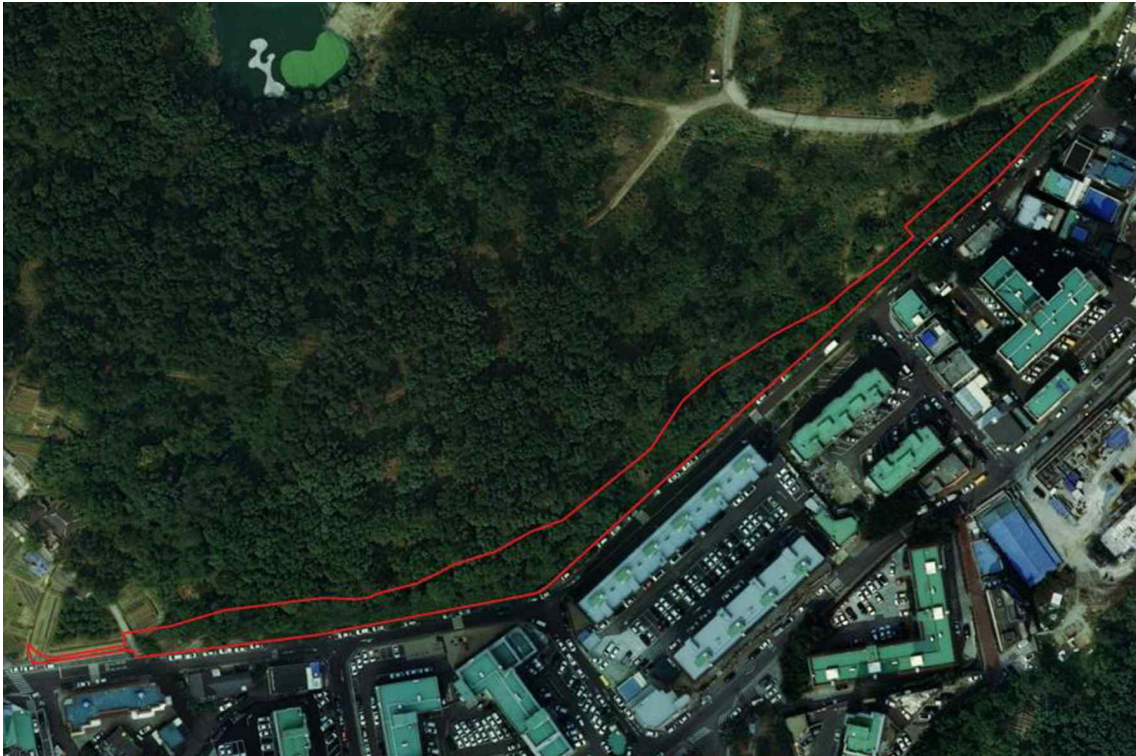


사진 1. 조사대상지 항공사진(출처:map.kakao.com)



사진 2. 조사전 근경1 (급경사 구역 A)



사진 3. 조사전 근경2 (급경사구역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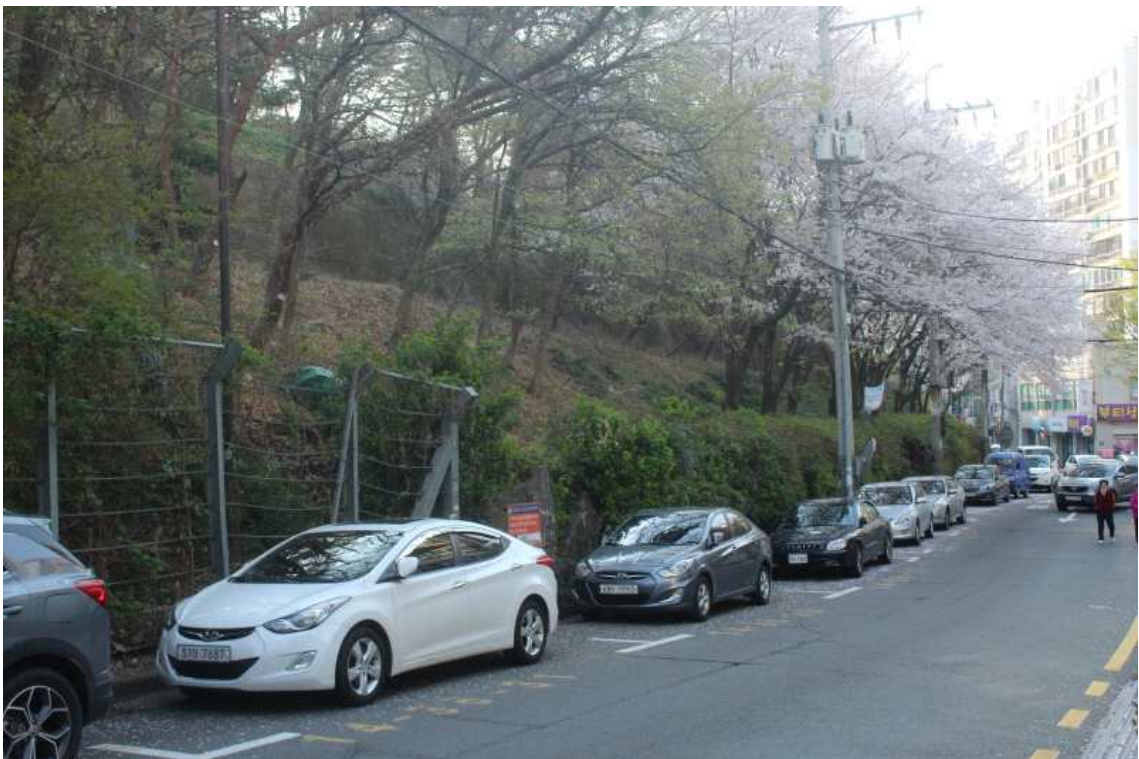


사진 4. 조사전 근경3 (급경사구역 C)



사진 5. 1Tr 전경



사진 6. 1Tr 토층



사진 7. 2Tr 전경



사진 8. 2Tr 토층



사진 9. 3Tr 전경



사진 10. 3Tr 토층



사진 11. 4Tr 전경



사진 12. 4Tr 토층



사진 13. 5Tr 전경



사진 14. 5Tr 토층



사진 15. 6Tr 전경



사진 16. 6Tr 토층



사진 17. 7Tr 전경



사진 18. 7Tr 토층



사진 19. 8Tr 전경



사진 20. 8Tr 토층